

석당뮤지엄 매거진

ANNUAL REVIEW 2025



숫자로 알아보는 지난 1년

개관일 수: **276일**(석당박물관) | **89일**(석당미술관)

관람객 수: **33,595명** | **9,963명**(온라인)

SNS 팔로워 수: **3,772명**(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국가/부산시 지정 유산 수: **59건 209점**(전국 대학박물관 및 부산 내 박물관 중 1위)

※ 국가귀속유산 포함(2건 42점)

소장품 수: **21,028점**(석당박물관) | **461점**(석당미술관) | **2,768점**(역사기록관)

소장품 대여 횟수: **9회**

※ 대여기관: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부산광역시근현대역사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양산시립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고성박물관

석당뮤지엄 MOU 체결 수: **3건**

※ 체결기관: 삼성문화재단,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근현대역사관,
범어사성보박물관, 부산문화재단,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글로벌대학 B-헤리티지 교육 성과: **1,594명**(25학년도 목표: 1,000명, 26학년도 목표: 3,000명)

출판물 발간 횟수: **3건**(석당박물관) | **2건**(역사기록관)

※ 석당박물관: 전지도록 <백년청사>, 발굴조사보고서 <사천늑도CIV>,
글로벌대학 대담집 <LOCAL RISE: 융합라이시움>

※ 역사기록관: 교사기록보고서(신문사료 1977~1978년, 1979년~1981년)

CONTENTS

04 석당뮤지엄 소개

석당박물관

06 상설전시 자연을 담다: 산수와 꽃, 그리고 붓

08 기획전시 백년청사

10 소장품 목조 동자상

석당미술관

12 전시 개최 현황

13 상설전시 Welcome! ART

역사기록관

14 비전자기록물 디지털 변환 사업

2025년 진행 사업

16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만나다

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18 동아굿즈(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19 동아뮤즈(MUSE): 예비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

글로벌대학30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20 B-헤리티지 메타뮤지엄 구축

22 동아월드(WORLD): 여행자, 명탐정

23 로컬라이즈(LOCAL RISE): 융합 라이시움

24 백년청사 나눔 스킴

25 틴틴 디지털 백년청사

26 B-헤리티지 네트워크 플랫폼 확장: MOU 체결

발행 정보

발행월 | 2026. 2.

발행처 | 동아대학교 석당뮤지엄

기획·편집 | 남승덕, 김수경

글 | 전아영, 남승덕, 송은지, 이유경, 이채린, 김수경, 이유빈

디자인 | 디자인닷

동아대학교 석당뮤지엄

동아대학교 석당뮤지엄은 설립자 석당 정재환 박사의 문화유산 보호 신념과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석당박물관, 석당미술관, 역사기록관으로 구성되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당박물관은 1959년 11월에 개관한 부산 최초의 박물관입니다. 국보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과 <동궐도>를 포함해 부산 및 전국 대학박물관 중 최다 국가·부산시 지정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부민캠퍼스에 있는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이전한 후 역사적 건축물과 유물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석당미술관은 2013년 부민캠퍼스 내 박물관 뒤편에 개관하였습니다. 박물관과 공존하는 설계를 통해 근대와 현대의 건축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다채로운 현대 회화와 조각품을 한자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사기록관은 대학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하였습니다. 대학의 역사를 넘어 지역사를 아우르는 아카이브 자료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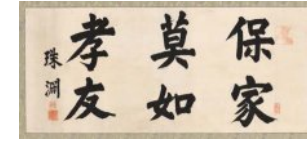
자연을 담다: 산수와 꽃, 그리고 붓

석당박물관 서화실,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지난 5월, 석당박물관 서화실이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보관만 되어있던 소장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관람객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금강전도 12첩 병풍
작자 미상
1700년대
종이에 채색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고종어필-보가막여호우
고종(1852-1919)
1800년대
종이에 먹



4인 합작 사군자도
안중식, 김응원, 이도영, 김규진
1919년 이전
비단에 수묵

자연을 보는 옛 화가들의 시선

이번 전시는 '자연'을 주제로 산수화, 화조화, 서예 등 총 21건 25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예로부터 화가들의 거울이자 벗이었습니다. 계절의 숨결, 산과 강의 흐름,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나비의 날갯짓까지 작가들은 자연 속에서 느낀 감동을 붓끝에 담아 화폭 위에 펼쳐냈습니다. 산수화와 화조화는 물론, 일상의 소망을 담은 민화, 시대의 미감을 전하는 서예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겸재 정선의 광포도, 산수도, 금강전도 12첩 병풍, 포도도 병풍, 고종어필, 김정희 유목, 문자도, 화조도 등 다양한 분야의 그림과 서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가치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감상하는 전시

이번 개편은 딱딱한 설명 대신 친근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품 해설을 새롭게 작성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정보무늬(QR) 코드를 활용한 시 보이스 오디오 해설(한국어, 영어)을 제공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대 화단의 연대, 즉석에서 피어난 붓끝의 대화
The Collaborative Art of Instant Brushwork

동시대 화가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은 고종 20년대 이후입니다. 당시 화가들은 자연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감,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1900년대부터 시작된 '즉석화'는 동시대 화가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석화는 전통적인 문인화와는 달리, 화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붓을 들고 그려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자연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동과 철학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산수화와 화조화는 이 시기의 대표 장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자연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자연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동과 철학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산수화와 화조화는 이 시기의 대표 장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자연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백년청사

If a Red Brick Speaks: The Centennial Chronicle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석당박물관 건물 건립 100주년을 맞아 열린 기획전시 '백년청사'가 약 5,200명의 관람객과 함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건물 하나, 다섯 개의 얼굴

1925년 경남도청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100년 동안 다섯 번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 중 임시 중앙청(1950-1953)이 되었고, 다시 경남도청(1953-1983), 부산지방법원-검찰청(1984-2001)을 거쳐 지금의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박물관(2009-현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년의 순간들

이번 전시는 경남도청 이전 과정, 건축 변화, 한국전쟁기 부산정치파동과 국제 연대, 법원-검찰청 시절 주요 판결, 그리고 이곳을 거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처음 공개된 자료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와 팸플릿, 1940년 건물 증축 평면도, 1952년 한미경제조정협정 체결 현장 영상, 1965년 동아대 구덕캠퍼스 대강당 증산왕 대관식 영상까지. 건물과 역사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경남도청 시절 근무자들의 증언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머니에 늘 보고용 수첩이 두둑했다"는 회상 속에서 이곳은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만든 전시

예비 큐레이터 '동아뮤즈'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과 굿즈, 전시 콘텐츠는 100년 역사에 젊은 감각을 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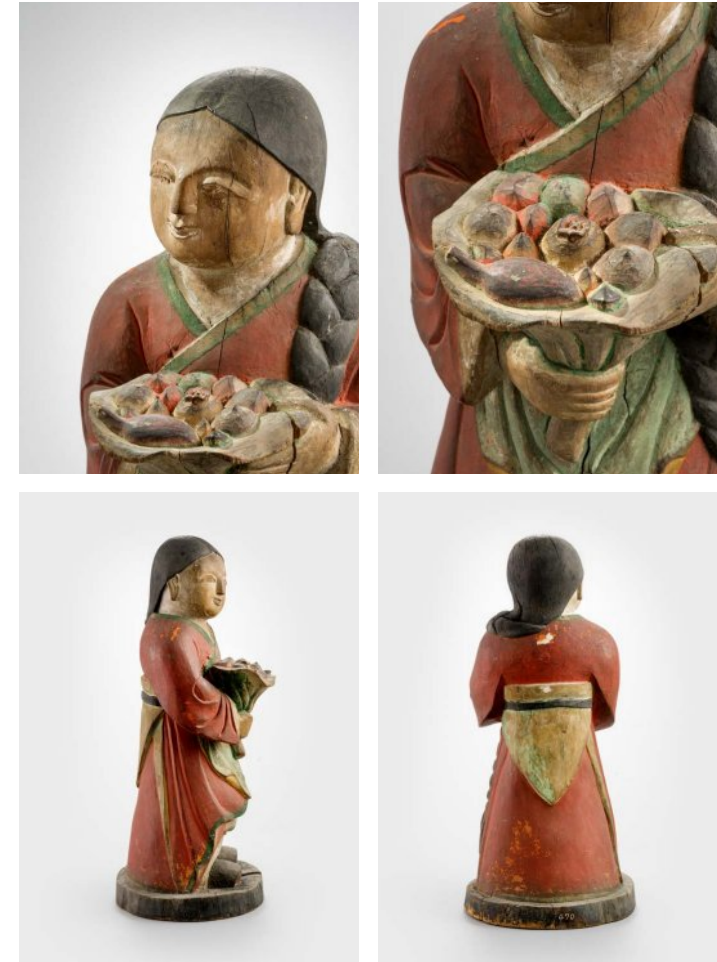
관람객들이 포스트잇에 남긴 소감은 건물 모양 전시판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중 진행된 3회의 특강과 발간된 도록은 백년청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건물과 사람, 그 관계를 주목하여 전시를 열었다는 것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목조 동자상

목조동자상 | 환한미소 | 동자보살 | 과일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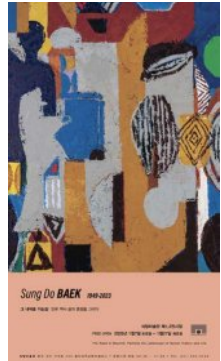


석당박물관 불교미술실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얼굴이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목조 동자상입니다. 석류와 복숭아처럼 좋은 의미를 지닌 과일을 연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받쳐 든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윗니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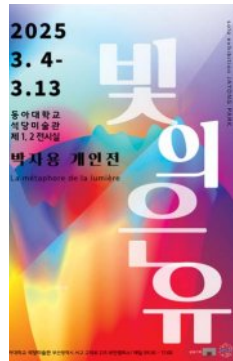
네모난 얼굴에 오동통한 볼, 반달처럼 휘어진 웃는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무릎까지 길게 땅아 내린 머리카락까지, 아이 특유의 천진한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붉은 도포에 초록 단을 두르고, 끈으로 조여 묶은 하얀 바지를 받쳐 입은 옷차림도 소박하면서 정겹습니다.

이 동자상은 혼자 모시는 조각이 아니라, 사찰의 명부전이나 나한전에서 큰 불상을 모시며 시종을 드는 '동자보살'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과일을 공양하는 모습은 17세기 이후 사찰에서 널리 유행한 형식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면 한국적인 친근함과 해학을 더해 더욱 사랑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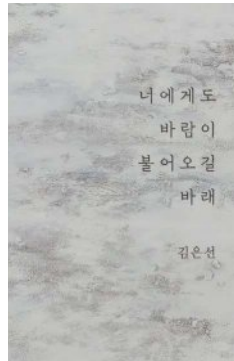
석당미술관 전시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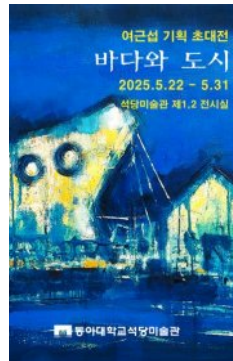
1. 7.~1. 21.
백성도 유작전
<Sung Do BAEK 1949-2023,
그 너머로 가는 길:
인류 역사 삶의 풍경을 그린다>



3. 4.~3. 13.
석당미술관 공동기획전
박자용 개인전 <빛의 은유>



3. 18.~3. 30.
김은선 개인전
<너에게도 바람이 불어오길 바래>



5. 22.~5. 31.
석당미술관 기획 초대전
여근섭 개인전 <바다와 도시>



10. 21.~11. 30.
석당미술관 특별기증전
<Welcome! ART>



12. 16.~12. 21.
신상용 개인전
<소비사회의 재구성>

석당미술관은 앞으로도 기증 문화 확산과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하며, 관람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 특별기증전시 Welcome! ART



2025년 석당미술관 특별기증전 <Welcome! ART> 전시는 최근 기증받은 회화와 공예 작품 15점을 선별하여 소개한 전시입니다. 이 중 2024년 12월에 기증받은 **故옥지선** 작가의 <내가 바라는 것 1, 2>에는 의미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故옥지선** 작가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들이 그해 석당미술관 상설전 <시티라이프>에 출품되었고, 이를 관람한 한 관람객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故옥지선** 작가의 작품 2점을 석당미술관에 기증하여 이번 2025년 석당미술관 특별기증전에 출품되었습니다.

이처럼 석당미술관은 전시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 기증자 사이의 긍정적 순환을 이끌어내며,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 디지털 전환 사업

오래된 문서와 낡은 사진, 아날로그 필름에는 동아의 치열했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기록관은 이 소중한 기억들이 시간의 무게에 바래지 않도록 '비전자기록물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과거의 기록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재학생과 동문, 그리고 지역민 누구나 동아의 역사를 더 가깝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동아의 발자취를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의 리즈시절
(1946-1976)



동아아카이브 포스터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x만나다

석당박물관은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x만나다'에 참여하여 "최초, 그리고 시작"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보물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입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겸이 영남 지역의 명소를 직접 여행하며 그린 14점의 산수화로, 부산 태종대·물운대·영가대를 비롯해 합천 해인사 등 영남의 대표적인 명승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자연경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작품은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석당박물관은 소장품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방문 인증 이벤트는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을 모티브로 제작된 특별 도장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매주 14점의 화첩 해설 콘텐츠를 연재하며 온라인 관람객과도 활발히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국·영문 AI 도슨트는 관람객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한층 높여 전시 경험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석당박물관은 2020년부터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유물과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올해는 유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분류하는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천 녹도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과 견골 연구 결과를 담은 『사천녹도 C IV』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 발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로, 향후 관련 연구와 전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총 3,600여 점의 유물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 2,500여 점은 국가귀속 절차를 완료하고, 국·공립 박물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리가 완료된 유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역의 국·공립 박물관으로 이관됩니다.

유물 정리가 이루어질수록 유물 정보가 명확해지고, 공개와 활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석당박물관은 유물 조사, 분류, 기록 작업을 지속하면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 문화 향유와 학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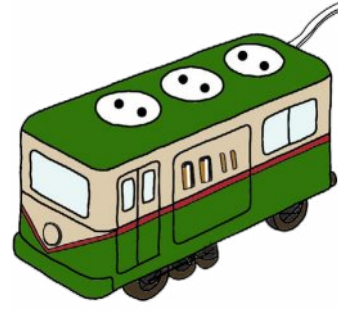
동아굿즈(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해를 닮은 벽시계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를 활용한 무선 이어폰 케이스



plug-on 부산 전차

석당박물관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동아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아굿즈(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박물관 대표 소장품(국가·부산시 지정·등록 유산)을 주제로 주제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굿즈 아이디어를 접수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공모를 통해 총 42건의 작품을 제출했으며, 그 결과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휴대용 평면해시계(평면일영)를 활용한 '해를 닮은 벽시계'를 제출한 문신영(중국학과 1학년)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전차를 활용한 3구 멀티탭 'plug-on 부산 전차',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를 활용한 무선 이어폰 케이스 등이 수상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본 대학교 학생들의 창의력 넘치는 생각이 모여 다양한 상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간 수상했던 작품 중 일부를 샘플로 제작하여 '동아굿즈 백년청사 에디션'으로 전시했습니다.



동아뮤즈(MUSE): 예비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

모두가 공정한 지역 문화를 누리기 위하여 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문화융합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제5기 동아뮤즈 명단

- 강성윤, 고경민, 김지민, 김효은, 남혜원, 손시아, 손주원, 송주영, 윤소현, 이성빈, 이채현, 장지원, 전영지, 정채은, 최임경, 허훈녕

제5기 동아뮤즈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전시 실무를 직접 체험하고,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과 문화유산기술연구소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문화 콘텐츠 제작에 접목하는 방법을 배우며, 전시 기획 역량과 디지털 융합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제5기 동아뮤즈의 결과물은 기획전시 '백년청사와 연계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영상, 컬러링북, 굿즈, 만화, 배라, 만화 패널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관람객들이 전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제5기 동아뮤즈에 참여한 손주원(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4학년) 학생은 "동아뮤즈 활동이 '기획'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려줬고,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창의성과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라며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석당박물관은 동아뮤즈를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 전시 기획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B-헤리티지 메타뮤지엄 구축

석당뮤지엄은 조용한 변화를 넘어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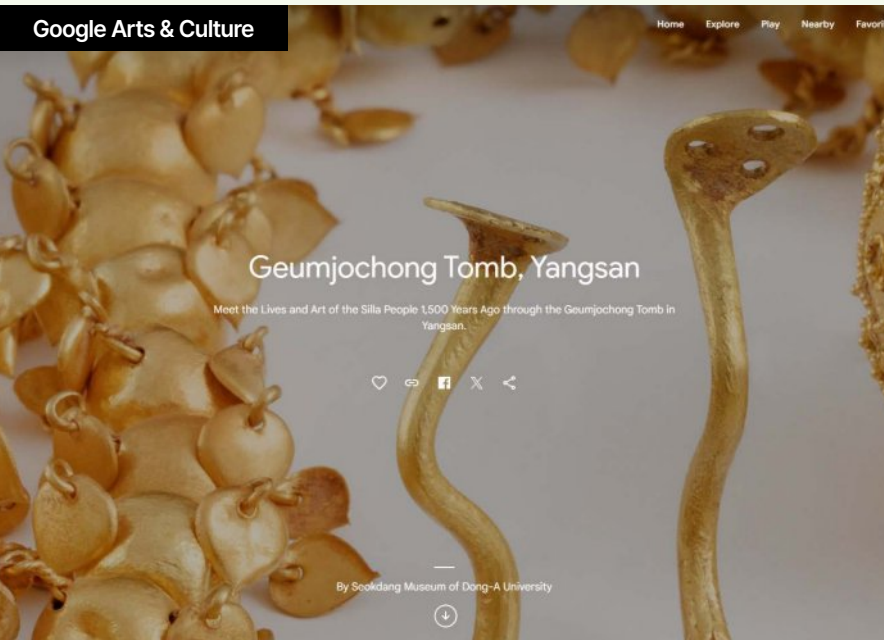
동아대학교가 보유한 독보적인 문화유산에 동서대학교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개방형 문화유산 디지털 플랫폼, '메타뮤지엄'을 구축합니다.

디지털 자원화

박물관 수장고에 머물던 유물들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살아있는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석당박물관 소장품은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고해상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미디어아트와 실감 콘텐츠로 선보입니다. 이는 정적인 유물에 기술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첫 단계입니다.

메타뮤지엄 조성

메타뮤지엄은 물리적 경계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글로벌 전시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석당박물관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오프라인에서는 박물관 정문에 설치된 '미디어 월'을 통해 생생한 몰입형 전시를 선보입니다. 시간간의 제약 없이 부산의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을 만들어 갑니다.



초등 교육

동아월드(WORLD): 여행자, 명탐정 ...



일 시
25. 5. 12.~11. 8.
내 용
- 여행자: 재학생·유학생 문화유산 교육자 양성 - 명탐정: 초등학생 대상 헤리티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요성과
참여인원 327명 만족도 4.6/5



석당박물관은 초등학생 대상 문화유산 체험교육이자 대학생 문화유산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인 '동아월드(WORLD)'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재학생과 유학생이 5개 팀을 이루어 교구 제작부터 수업 지도안 구성까지 실제 수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올해는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와 '부산 전차'를 주제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총 35회의 수업을 운영했고, 초등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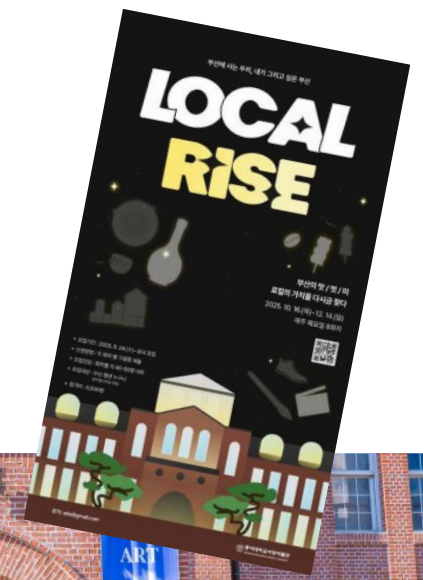
청장년 교육

로컬 라이즈(LOCAL RISE): 융합 라이시움 ...



일 시
25. 10. 16.~12. 14. *애프터독 포함 10회 진행 (답사 1회, 특강 8회, 교류회 1회)
내 용
지역 청장년을 대상으로 테마별 강연·체험·탐방이 결합된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
주요성과
참여인원 302명 만족도 4.66/5

석당박물관은 부산의 지역 자산을 중심으로 한 청장년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 'LOCAL RISE'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의 '맛, 멋, 마'를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근·현대 문화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로컬 전문가의 강연과 캐주얼 토크, 지역 유산을 활용한 식품 시식 및 제품 제작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를 새롭게 탐색했습니다. 총 8회 진행된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은 재참여가 이어질 정도로 지역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애인 교육

백년청사 나눔 스쿨 ...



일 시
25. 4. 1.~10. 31.
장 소
부산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참여 기관: 총 8곳(부산동암학교, 부산직업재활원,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구장애인복지관, 사상구장애인복지관,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호산나복지재단)
주요성과

횟수 30회 | 참여 인원 510명 | 만족도 4.8/5



석당박물관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 8곳을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대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박물관은 부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해설과 체험 교구를 활용했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변관식필 영도교,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밀다원 시대, 부산 전차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51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동아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예비 큐레이터 '동아뮤즈'가 보조강사로 함께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장애인 참여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교육을 진행한 이번 시도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정서적·사회적 통합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고등 교육

틴틴 디지털 백년청사 ...



일 시
25. 4. 1.~10. 31.
장 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주요성과

횟수 17회 | 참여 인원 354명 | 만족도 4.8/5



석당박물관은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지역 내 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틴틴 디지털 백년청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소장품을 주제로 한 미션형 교육과 동아대학교 전공멘토단 '고온'과 함께하는 진로 특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교육의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미션형 활동지로 흥미를 높이는 한편, 전공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에게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B-헤리티지 네트워크 플랫폼 확장

동아대학교 석당뮤지엄은 국내 및 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유산 학술 연구·교육·콘텐츠 개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미래형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글로벌대학 B-헤리티지 학술교류 업무협약

일시: 2025. 5. 8.(목)
장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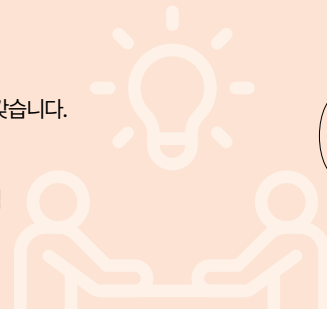
동아대학교는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동서대학교 및 범어사 성보박물관·부산문화재단·부산박물관·부산근현대역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은 학술 교류, 연구·콘텐츠 공동 개발, 필드(현장) 인턴십 교류 활성화 등 B-헤리티지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과 브랜드화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향유확산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교류 업무협약

일시: 2026. 2. 13.(금)
장소: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가 삼성문화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이번 만남은 부산을 대표하는 석당박물관과 세계적인 컬렉션을 자랑하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이 만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과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입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전시 협력을 통한 대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시·연구·활용 분야의 공동 협력 ▲지역사회 공헌 및 미래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6 / 27



부산-대만 산업유산 학술교류: B-헤리티지

일시: 2025. 5. 23.(금) - 5. 24.(토)
장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타이베이과학기술대(台北科技大學), 중원대(中原大學), 대만박물관문화교육재단(財團法人臺灣博物館文教基金會) 등 대만 대표 대학 및 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대구 산업유산 현장 탐방과 국제학술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류는 지역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글로벌대학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가야문화권 인공·동물유체 연구·활용과 디지털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

일시: 2025. 9. 29.(월)
장소: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가야 문화 복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번 업무협약(MOU)의 핵심은 '과학적 분석'과 '디지털 보존'입니다. 가야문화권에서 출토된 인공과 동물 유체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타임캡슐입니다. 석당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유체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인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는 B-헤리티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나섭니다.

동아대학교 석당뮤지엄

주소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 석당미술관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석당기념관 2층

전 화: 051-200-8493 (석당박물관) | 8749 (석당미술관) | 240-2906 (역사기록관)

팩 스: 051-200-8498

전자우편: museum@dau.ac.kr

누 리 집: donga.ac.kr/museum (석당박물관) / museumsd.donga.ac.kr (석당미술관)